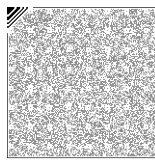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새보람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36호

2012년 6·7월

장애인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해!!

2008년 4월 11일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수많은 차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장애인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갑시다.

내가 참으면 차별은 계속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어제 오후의 일도 아닌데 머 참자 참어...



김정록 중앙회장(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5월 30일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청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정록 중앙회장(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9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장애계의 숙원 법안인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하며, 480만 장애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김정록 회장(의원)은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이자 21만 발달장애인은 물론, 480만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을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정록 회장(의원)이 대표 발

의한 이번 법률안은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 의원, 정두언, 정갑윤, 유정복, 김태원, 노철래, 김희정, 한기호, 이상일, 박인숙, 조명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서비스 업무를
통합관리·지원하는 원스톱 지

원체제를 마련하였고,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및 재활환경을 개선,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주 환경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통합에 기여토록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정록 회장(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 결정, 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격리되어야만 했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법안의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정록 회장(의원은)은 “동법안이 미국은 1963년, 스웨덴은 1968년, 일본은 2004년에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을 정치권에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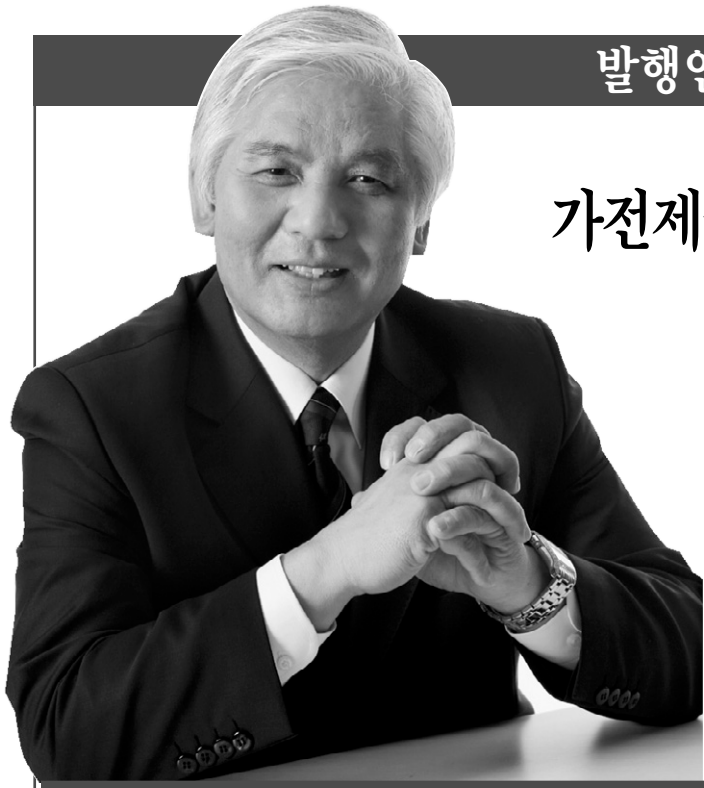
한편, 김정록 회장(의원)은 4·11 총선과 관련 새누리당 차원의

영입제에 지난해 3월 20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을 받았고,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이 42.8%의 정당득표를 획득, 25석을 확보하면서 지장협 역사상 첫 국회입성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 당선이 확정된 후 “명예나 기쁨보다는 국회에서 얼마나 장애인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 의도를 떠나 480만 장애인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밝힌 바 있다.

발행인 칼럼

가전제품 등 ‘장애인 접근성’ 위한 제언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가전제품과 IT기술은 ‘자립(自立)’을 위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TV로 뉴스와 영화를 시청하는 일은 어찌 보면 너무도 ‘사소한 일상’이겠지만, 장애인에게 ‘생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이며, 많은 장애인들이 가전제품과 IT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됐지만, 정보통신기기

를 활용해, 사고 전과 다름없이 강의와 연구생활을 훌륭히 이어가고 있는 ‘서울대 이상목 교수’의 사례처럼, IT 기술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손과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가전제품과 IT기술의 ‘접근성’은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자막 기능이 TV에 ‘내장’되어 있지만, 국내 청각장애인들은 TV

구입 후 ‘별도의 자막기’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급 받아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현실입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는 물론, 기업 또한 ‘자막기능’을 TV가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자막기가 ‘내장’돼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를 부가적인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적 근거 미비’와 ‘기업의 인식 부족’의 차이일 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국내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쿠쿠홈시스(社)는 최근 장애인과 노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전기 밥솥을 출시했고, 우리나라의 자랑인 삼성 휴대폰 ‘갤럭시 노트’에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애플사 아이폰의 ‘손쉬운 사용 기능(장애인)과 고령자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자신에 맞게 화면을 조

정하거나 글자를 읽어주는 기능을 활성화)’처럼 선진국의 제품과 비교하자면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배려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전제품과 IT기술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 가전제품 ‘접근성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 생산·판매 가전제품의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 접근성 표준화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발표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장애감성제품)을 고려하고, 장애인당사자(소비자)의 평가시스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배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제품과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은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

다.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벨’은 청각장애인인 어머니를 위한 보청기를 만드는 것이 진전돼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하게 됐습니다.

또한 절단장애인을 비롯한 외발운전자를 위해 발명된 ‘자동기어변속장치’는 이젠 초보운전자 뿐 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선호하며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로 시작된 발명이, 이젠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발전한 것입니다.

가전제품과 IT기술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삶이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원합니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정록**

맞선이벤트 ‘솔로탈출119’ 참가자 모집

장애인 남·여 20쌍...9월 14일까지 접수



지난 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솔로탈출119’ 행사 모습.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오는 9월 22일(토)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될 예정인 장애인맞선 이벤트 ‘솔로탈출 119’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장협은 결혼을 희망하는 성인 남·여 장애인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

한 ‘솔로탈출 119’를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5회째이다.

참가자격은 이성과의 만남·결혼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여 장애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오는 9월 14일(금)까지 참가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지장협 홈페이지(www.kappd.or.kr)에서 내려받으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02-2289-432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 9월 15일 열려



지난 해 9월 24일 전북 정읍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법인이사장배 제3회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에서 열린 ‘링던지기’ 경기 모습.

국내최대규모의 장애인시설을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와 산하 시설 간 교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법인이사장배 제4회 장애인복지관협의회체육대회(이하 복지관협의회 체육대회)」가 오는 9월 15일(토)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국사관학교 화랑운동장(예정)에서 열린다.

지장협 산하 전국 복지관과 법인 직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 지역의

복지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에는 법인 및 법인산하 장애인복지관 20여개 기관 7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대회로 열릴 예정이다.

체육대회의 종목은 단체줄넘기, 피구, 족구, 줄다리기, 단체 릴레이(장애·비장애 포함)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대회에서는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달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우승과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센터 홍보 ‘버스광고’ 실시

센터 인지도제고 위해...6월 한달간 게재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지난 6월 한 달 간 실시한 버스광고 모습.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기호, 이하 경기편의센터)가 경기도 내 버스 광고를 지난 6월 한 달 간 실시했다.

‘누구나 차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6월 한 달 동안 경기도 곳곳을 달리며, 편의센터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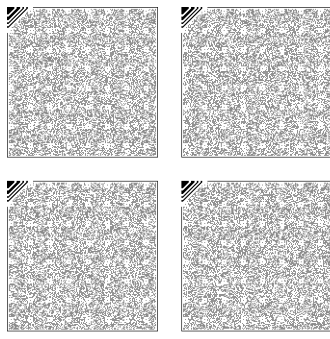
이번 버스광고 게재는 경기도 편의센터의 홍보분과(구 분과운영)에서 처음 구상했던 사업으로, 기존 신문광고의 단순함을 벗어나 일반시민들에게도 편의센터를 알리고자 실시된 것이다.

경기도의 하루 평균 버스 이용 승객은 398만명이고, 이 중 광역 버스 이용 승객은 하루 평균 47만1천명이다. 따라서, 이번 광고는 편의센터 인지도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호 경기편의센터장은 “우리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경기편의센터가 홍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버스 영상(LCD 모니터) 광고, 수도권지하철 내부광고까지 확대 하겠다”고 전했다.

대구협회 산하 ‘체육대회’ 실시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협회)는 지난 6월 2일 토요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 강당과 운동장에서 협회 산하 조직원

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대구협회 및 산하기관 직원 242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체육대회는 대회 참가자들이 그간 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함은 물론, 상호

친밀감을 조성해 향후 지역 내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원활한 업무협조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직원들의 즐거운 시간을 위한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 기관별 장기자랑을 통해 그간 숨겨왔던 끼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푸짐한 경품들을 준비하여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한편,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한 김창환 대구협회장은 “그간 복지관과 협회간의 유대관계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제8회 지체장애인바다체험대회」 개최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7월 20일 개최한 「2012년 제8회 지체장애인여름바다체험대회」행사 모습.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재홍, 이하 광주협회)는 이달 20일 구시포 해수욕장(전북 고창 소재)에서 「2012년 제8회 지체장애인여름바다체험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중증장애인들을 포함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340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를 주최한 이재홍 협회장은 “가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 없이는 바다에 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며 “광주지역의 장애인들이 오늘의 행사를 통해 여름바다를 만끽하고, 나아가 자립과 재활의 지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광주광역시·대한적십자사·북구지구슬 앞봉사회·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등이 후원했다.

장애인편의시설 선진지 탐방

일본 복지시설 고베 행복촌 등 방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임직원들이 지난 2일 일본을 방문, ‘장애인편의시설’을 탐방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장재권, 이하 경북협회)의 임직원들이 지난 7월 2일 일본을 방문, 4박 5일간 장애인편의

시설 선진국인 일본의 ‘장애인편의시설’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가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탐방은 경상북도와 SK이노베

이션의 후원으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장과 실무직원 58명이 참가해 일본의 편의시설 정책 및 설치사례 등을 직접 조사하고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일본 고베의 행복촌 및 오이타 태양의 집 견학, 신칸센 열차 체험 등 일본 장애인복지의 생활 편의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장재권 경북협회장은 “이번 탐방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과 편의시설 설치 사례의 장단점을 연구·실천하여 경북 장애인복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하계수련회’ 개최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이건회)는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시 웅천읍에 위치한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장애인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들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접하고 바다 체험을 통해 체력강화와 재활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지역의 장애인지도자와

회원, 자원봉사자 등 2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이, 2부는 서로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한 촛불의식, 3부 행사로는 해변을 무대로 한 보물찾기가 열렸다.

이건회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사회인식개선을 위해 보다 나은 행사와 캠페인 등으로 찾아뵙겠다”라고 말했다.

장학금 기부한 학생 화제

대전고등학교 김보현 학생...70만원 기부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보현군이 대전시로부터 받은 '인재장학금'을 대전시 지체장애인협회에 기부해 훈훈한 나눔의 기쁨을 전했다.

김군은 지난 6월 29일 대전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찾아, 윤석연 협회장에게 대전시 인재장학금으로 받은 70만원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김군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전시로 받은 장학금을 장애인을 위해 기부한 대전고등학교 김보현 학생(오른쪽 두 번째).

한모봉사단에서 3년째 지체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나눔의 행복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힘으로 받은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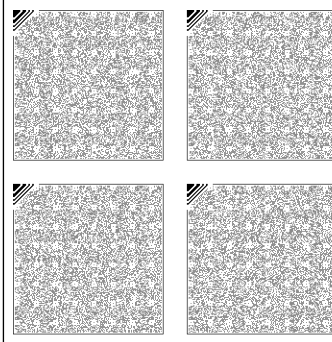
으로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군은 지난달 1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인재장학금 시상식에서 장학증서와 대전인재 육성장학금 70만원을 수여받았다.

김군은 대전시 지역영재, 카이스트 사이버영재센터에서 과학부분을 이수, 한국학생창의력을 립피아드 대회 동상, 특별상을 수상해 미국본선 진출권을 획득했으며, 미국 NASA에서 후원하고 매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창의력을립피아드대회도 참가하는 등 과학 부분에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전시학생발명대회에서 교육감상을 매년 수상했으며, 2012년 5월 과학의 날 유공자로 선정돼

소리로 읽는 새보람



대전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제 11회 청소년 발명대회에 본선 진출했다.

김군은 장래희망에 대해 "생화학 부분을 공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사건을 해결하고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생화학부문 1위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경남협회 합천군지회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지회장 김흥기, 이하 합천지회)는 지난 6월 29일 합천군청 광장에서 합천군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장애인콜택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차량 전달식으로 합천군지회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교통약자 콜센터'를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시내버스 요금의 2배(2,100원), 관외 이용 시 시외버스 요금의 2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하게 됐다.

'교통약자 위한 차량전달식' 열려

비용 저렴...연중무휴 운영



합천군청과 합천군지회가 지난 6월 29일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전달식' 모습.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문의는 지회(931-0005)', '합천군청 경제통상과(930-3371~4)'로 하면 된다.

「2012년도 임·직원 수련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중, 이하 제주협회)는 7월 15일(일) 「2012 임·직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협회 임·직원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임·직원 상호

간의 교류는 물론 장애인복지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자유훈은 분위기에서 장애인복지 및 조직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와 소통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수련대회에는 노래방, 율놀이, 물놀이, 소통의 시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중증장애인 열린 세상 보여주기



'제4회 중증장애인 열린 세상 보여주기'의 참가자들이 함백산 정상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가 주관하며, 대한산악연맹 김천시연맹(회장 이정배)이 후원하는 '제4회 중증장애인 열린 세상 보여주기' 행사가 지난 6월 30일 강원도 정선군 함백산 일원에서 열렸다.

중증장애인 13명을 주인공으로 초대한 가운데 지회 임직원, 보호자, 김천시청 관계공무원, 산악연맹 회원 봉사자 등 80여명이 함백산 등반을 실시했다.

산악연맹 봉사자들의 승용차로 중증장애인 주인공과 보호자를 직접 고수부지로 이동, 관광버스 2대와 승합차 등 차량 3대로 편승하여 아침 6시에 김천을 출발, 강원도 정선군 함백산으로 출발했다.

오후 1시 함백산 입구 만항재에서 힘찬 파이팅을 시작으로 대장정을 시작한 이후 산악회 회원 3명과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1명이 한조를 이루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동행'이 연출됐고, 2시간여의 등정 끝에 정상(해발 1,573 km)을 정복했다.

장애인 보장구 '방문수리' 운영

오는 12월까지...고장신고 전화도 운영

충남협회 논산시지회

논산시는 오는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 방문수리'를 실시한다.

시는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지회장 손병복, 이하 논산시지회)와 연계해 전동스쿠터,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등 간단한 부품교체와 훼손은 현장을 방문 수리해 주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는 판매업체를 연계해 주는 한편 고장신고 전화도 운영한다.

현재 논산시의 장애인 보장구 이용자는 전동스쿠터 227명, 전동 휠체어 101명 등 총 328명으로서 지난 3월까지 보장구 사용 현황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그동안 보장구 15대를 방문수리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집중호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현장방문 수리 상시 정비체계 구축으로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활동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36호 2012년 7월 2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경선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

47번째 명예시장...현장 방문해 시정 살피



유장식 오산시지회장(왼쪽) 광상욱 시장으로부터 명예시장 위촉패를 받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유장식 오산시지회장이 지난 6월 27

경기협회 오산시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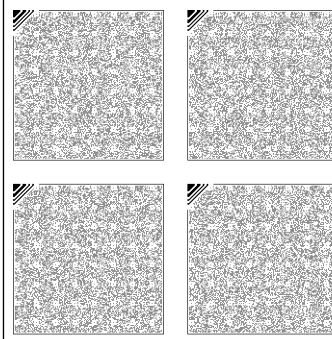
경기도 오산시(시장 광상욱)는 민선5기 출범 후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 참여 기회 제공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47명의 시민을 명예시장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날 유장식 명예시장은 보건소와 중앙도서관, 맑음터 공원, 시민스포츠센터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당면사항을 보고 받은 후 각종 시설을 둘러보면서 명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유장식 회장은 “명예시장을 계기로 평소 알 수 없었던 시정 운영과 공직에 대해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공주쑹 · 공주시청과 협약 체결

지역장애인의 안전보호 및 확보 위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공주경찰서, 공주시청 3개 기관이 ‘장애인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남협회 공주시지회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지회장 김명호, 이하 공주시지회)가 6월 12일 공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공주경찰서(서장 이시준, 공주시청(시장 이준원)과 장애인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공주시지회, 공주쑹, 공주시청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지역장애인들이 사회적 소외계층을 넘어 범죄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편·부당한 제도와 시설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출입구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통행 불편시설 개선,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합동단

속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김명호 지회장은 “충남 지역 중 공주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형식적·전시성 장애인 보호활동이 아니라 장애인을 내 가족·내형제처럼 여기는 진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호활동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시준 공주경찰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부임이후 노인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해왔었다”며 “경찰활동의 중점을 노인과 장애인을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두겠다”고 말했다.

경북협회 포항시지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관용, 이하 경북체육회)가 지난 6월 25일 이용성 포항시장에 인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스포츠용품 지원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는 물론,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경북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전달식에는 경북체육회 장재권 부회장(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이 직접 참석해 이용성(경북협회 포항시지회장)에게 배드민턴 경기용 휠체어 2대, 탁구 경기용 휠체어 1대, 파크골프 경기용 휠체어 1대 등 휠체어 4대와 파크골프 클럽 5세트 등 시가 2천 5백만원 상당의 장비를 전달했다.

이용성 포항시장장애인체육회

경북체육회, 스포츠용품 지원

경북장애인체육 활성화 위해...2천5백만원 상당



장재권 경북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이용성 포항시장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장비를 전달하고 있다.

상임부회장은 “오늘 전달된 장비는 각종 대회에서 경북의 우수한 성적은 물론, 장애인들의

사기양양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간을 보냈다.

김석진 지회장은 “지역 장애인들이 화합하여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지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 군의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 하계수련회’ 실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가 지난 7월 13일 실시한 ‘지체장애인 하계수련회’ 행사 모습.

경북협회 봉화군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지회장 김석진, 이하 봉화지회)가 주최한 ‘지체장애인 하계수련회’가 7월 13일 지회임원 및 회원, 내빈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산농원(명호면 북곡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련회는 봉화군 내 지체장애인에게 자립의욕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에 이어 색소폰 공연을 감상하고 장기자랑, 보물찾기 등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

장애인복지기금 950만원 지원 받아

직업교육, 자연체험 등에 사용

전북협회 무주군지회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대수, 이하 무주지회)는 지난 달 16일 ‘2012년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군으로부터 950만원을 지원받

았다.

지원된 기금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도자기와 목공예체험장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진찍기와 그림그리기 등 마음으로 보는 자연현장체험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음으로 보는 사진찍기와 그림그리기 자연현장체험은 장애인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주군지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신체적 불편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마련 등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더운 여름, 특별한 삼계탕으로!”

삼성카드봉사단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삼계탕 전달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이 7월 21일 개최한 ‘당신만의 특별한 삼계탕’ 행사에서 봉사자들이 중증장애인가정에 전달할 삼계탕을 만들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

가정을 위한 ‘당신만의 특별한 삼계탕’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카드(대표 최치훈) 임직원으로 구성된 ‘삼성카드 사회봉사단’과 함께 한 이날 행사는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때마침 돌아오는 복날을 대비해 지역 내 중증장애인 200 가정에 삼계탕과 신선한 과일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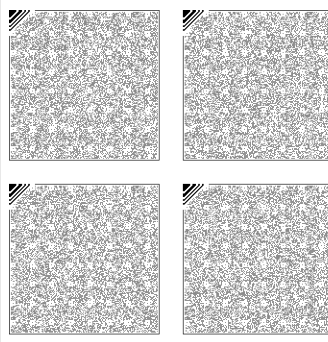
특히, 이날 행사는 삼성카드에

서 SNS를 통해 모집한 자원봉사자와 삼성카드 임직원의 가족들이 함께해,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사랑나눔의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SNS 자원봉사자 이00 씨는 “오늘 행사를 통해서 받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이 더 큰 것을 느꼈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을 보며 보다 밝고 따뜻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참여소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삼계탕과 과일도시락을 받은 재가장애인 고00씨는 “덥고 지치기만 하는 요즘 보양식

소리로 읽는 새보람



을 만들어 먹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든든하게 삼계탕을 먹게 되어 올 해 여름은 가뿐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삼성카드는 현재 북부장래와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사회공동체로서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는데 앞장서고 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청와대 관람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래)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6월 29일,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용고객과 함께 ‘청와대 관람’을 실시했다.

당일 복지관을 출발하여 지역사회 근처 음식점에서 갈비탕과 냉면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경복궁 동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관람인솔 담당자의 도움으로 청와대 홍보영상 시청, 녹지원,

구본관터, 대통령의 직무실인 영빈관을 차례로 관람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됐다.

한 자원봉사자는 “여가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봉사소감을 전했다.

원래(olleh) 튀(T)는 엄지족’ 진행

휴대폰 활용해 의사소통 및 사회성 향상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장세종)에서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휴대폰을 활용한 장애아동의 언어표현향상프로그램 ‘원래(olleh) 튀(T)는 엄지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래(olleh) 튀(T)는 엄지족’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지역대학 언어치료학과와 연계하여 문자 언어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휴대폰 활용교육 및 에티켓, 문자메시지 보내기, 문자워드대회, 골목지도 만들기, 테마촬영 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관 측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이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문장 조합능력 습득으로 장애아동 개인의 의사전달능력이

향상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 증진과 사회성 증대를 도울 수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아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유대감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이에 장세종 관장은 “휴대폰의 긍정적 기능을 통해 또래 문화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한 소통방식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장래인종합복지관

용인시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용인장래)은 지난 6월 23일 복지관 개관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에서 펼쳤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복지관’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고 개관 이후 복지관과 함께 해준 이웃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이날 용인장래 직원들은 지역농민들과 함께 밭일과 농가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함께 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용인장래 이선화 사무국장은 “직원들

개관 7주년 맞아 봉사활동 펼쳐



용인시장래인종합복지관의 직원들이 복지관 개관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농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한 마음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하며, “서투른 손길이지만 이날 용인장래 직원들이

흘린 구슬땀이 농번기에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희망, Jump up!” 수료식 열려

목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

목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조문호, 이하 목포장래) 지난 6월 29일 “희망, Jump up!” 프로그램의 수료식을 실시했다.

“희망, Jump up!” 산재근로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직업기능향상 프로그램으로 올해 5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3회 원예치료, 웃음치료, 집단미술치료, 자기효능감증진프로그램, 직업평가, 직업준비프로그램, 직업탐색, 현장견학 등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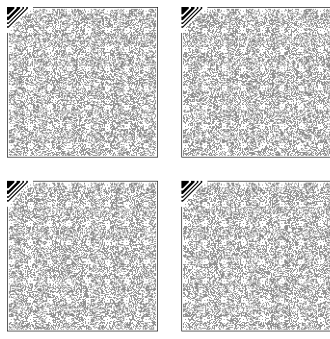
시했다.

이날 수료자는 총 10명으로,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박귀단 지사장이 직접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수료자 중 2명이 취업이 확정되어 의미가 남다른 수료식이 됐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309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제309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지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된 김정록, 최동익 두 장애계 대표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 및 산하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장애계와 관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업무보고가 실시된 이들 동안 복지부 및 모든 산하 기관(식약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계와 관련한 질의를 던지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정록 의원이 업무보고의 첫째 날 복지부에 질의한 ‘발달장애인법 토론회 무산’과 관련한 질책은 장애계에 화제가 되기 충분했다.

■ 복지부, 발달장애인법 토론회 무산 의혹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7월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업무보고) 첫째 날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계획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복지부가 취소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지난 7월 4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발제자, 토론자 섭외까지 모두 끝냈었는데 마지막 보건복지부 보고과정에서

토론회가 갑자기 취소됐다”라고 밝히며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토론회를 취소시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이 밝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법 토론회 개최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토론회 목적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1호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적시돼있다. 하지만 토론회가 취소된 이후 <발달장애인법 토론회 취소 사유> 자료에는 “발달장애인 지원방안 법제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19대 1호 법안으로 발달지원법안이 발의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6일 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 전동보장구, 배터리 지원 제한에 ‘사장’

김정록 의원은 전체회의(업무보고)의 둘째 날(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전동보장구에 쓰이는 배터리의 정부지원이 제한돼 있어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전동보장구가 ‘사장’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정록·최동익 장애계 대표 의원, 복지부 현안 질의

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법 토론회’ 무산 등 질책

되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처음에는 법안을 제출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법안을 제출해서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자료, 즉 허위문서를 헌법기관인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복지부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복지부가 (토론회를) 취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12월부터 내구연한 6년 이내의 전동보장구에 대해 배터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괄적인 기준 적용으로 멸정한 전동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장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가 16만원의 배터리는 건보공단이 80%인 12만8,000원을 지원해 장애인은 3만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된다. 하지만 배터리 지원은 전동보장구를 구매한 이후 18개월부터 내구연한인 6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보장구를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배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즉 전동보장구를 구매하고 4년6개월 안에서만 배터리 지원금이 주어진다.

반면 건보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전동보장구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일평균 사용량은 2.1시간 이었다. 하루 1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장애인도 66.5%나 됐다. 전동보장구 구입 후 5년 이상 사용가능한 비율도 83.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동보장구 관리를 잘해 내구연한 이상 쓰는 장애인들도

많은데 정작 내구연한이 지나면 배터리 지원이 끊겨 보장구가 고물이 돼 버린다”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알았다”며 검토의 뜻을 내비쳤다.

■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영터리’

지난해 도가니 사태 이후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영터리였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7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인권실태조사를 받은 명심원과 당시 대상에서 누락됐던 예원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도가니사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380개 중 200개 장애인생활시설들에 대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올해 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9개 시설에서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7건은 형사고발 조치, 18건은 시설폐쇄 및 법정전환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최 의원은 “실태조사를 받았던 명심원은 당시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최근 인권위 조사결과 생활인 착취 등 인권탄압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됐던 180개 중 예원은 당시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졌는데 인권실태조사가 영터리였던 것 아니냐”며 “전체 시설에 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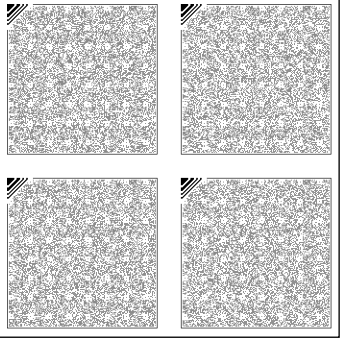
명심원은 인권침해 의혹 등으로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받았으며, 예원은 인권위 조사결과 종사자가 생활인을 폭행하고 성희롱한 것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 임 장관은 “매년 정례적으로 인권실태를 하도록 돼 있는데 1차적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200개 시설에 대해 우선 점검한 것”이라며 “빠진 시설들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발달장애인법 토론회 무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롭게 편성됐으며, 위탁사업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인건비를 지난 해보다 3% 늘린 월평균 297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0억원으로 잡았다.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기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여했다. 기초는 0, 차상위 2만원, 50%이하 4만원, 100% 이하 6만원, 150% 이하 6만원, 150%이하 8만원, 150% 이상 10만원 등이다. 지원 대상도 올해보다 9000명 확대된 4만6000명으로 잡아 바우처 지원을 위한 예산 605억800만원을 요구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 예산으로 12억 9900만원, 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외에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따라 장애아동부모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모교육기관을 기존 1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기로 하고, 1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양육지원 대상도 올해 2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잡고, 46억63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출처·에이블뉴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얼마나 늘어날까?”

복지부 요구예산 분석...연금 2만2천원 인상 추진

■ 장애인소득보장...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연금을 최대 2만2,000여원까지 인상해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사업 예산안은 3,441억3,600만원이며, 대상자 수는 올해와 동일한 32만7,467명으로 잡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현 9만4,600원보다 2,600원 인상된 9만7,200원(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A값의 5%)으로 편성됐다.

나이와 계층별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2만원을 인상하는 수준으로 18~64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계층은 8만원, 7만원, 2만원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계층은 17만원, 7만원, 4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65세 이상 차상위특례 계층과 시설특례 계층은 각각 12만원, 7만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른 복지부 예산안이 수정 없이 기재부와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2013년도부터 2만2,000여원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각각 525억5,300만원, 255억9,700만원 편성됐다.

계층별 지원대상은 각각 21만 6,910명, 10만5,650명으로 추계했다. 지급액은 올해년도와 동일한 3만원 수준이다.

장애정도와 계층별로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 예산은 총 275억6,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상은 18세 미만으로 2만5,232명.

지급액은 중증·기초수급자 20만원, 중증·차상위 15만원, 중증·보장시설수급자 7만원, 경증·기초 및 차상위 10만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3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요구예산 중 '장애인 소득보장', '저소득장애인 지원', '장애인선택적복지' 등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급여체계 및 부가급여 인상안>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2013 인상안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부부감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18~64	94,600원	151,400원	X	6만원	8만원
		65~	-	-	-	15만원	17만원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가)	18~64	94,600원	151,400원	X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장시설)	65~	-	-	-	0(7만원)	0(7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18~64	최고 94,600원	최고 151,400원	O	5만원	7만원
		65~	-	-	-	5만원	7만원
장애인연금	_하위 50%	18~64	최고 94,600원	최고 151,400원	O	-	2만원
		65~	-	-	-	2만원	4만원

경증보장시설수급자 2만원이다.

■ 저소득장애인 지원...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위해 53억원 편성

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총 53억원을 추계해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성년후견인 양성 사업비 12억5,000만원, 성년후견서비스 지원비 17억4,200만원,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비 23억 8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 같은 예산으로 성년후견인 6,250명을 양성하고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13만명에게 성년후견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년후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6만9,000명에게는 감정비 등 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을 지원할 생각이다.

특히 복지부는 2013년도 53억원을 시작으로 연평균 29.6%씩 예산을 증가, 2014년 87억7,100만원, 2015년 101억1,600만원, 2016년 111억6,100만원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년후견제도란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

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 제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인(능력 결여), 한정후견인(능력 부족), 특정후견인(일시적 후원필요) 등으로 구분되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대리, 의료행위 등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결정의 등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권리보호가 가능하게 되고 자녀와 이해관계가 다른 치매노인의 실질적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직업후견인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시민후견인의 경우 사회공헌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외에도 장애인자녀학비지원(10억9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36억3,4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34억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15억1,600만원), 장애인지원관리(7억4,400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인식개선(4억 7,300만원),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순회교육(6억6,200만원)을 책정했다.

■ 장애인선택적복지...활동지원 월급여량 2만1천원 인상

복지부는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월평균 급여량을 2만1000원 인상해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

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활동지원 예산안은 총 3266억 2700만원이며, 대상자 수는 올해와 동일한 5만5000명으로 잡았다.

활동지원급여는 월평균 현 69만2000원보다 2만1000원 인상된 71만3000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급 중증장애인 5만5000명에게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해왔으며, 오는 2015년까지 대상자가 5000명 확대된 6만명, 지원규모 월 75만6000원까지 늘리는 등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원활한 활동지원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도 지난해보다 6억 500만원 늘린 117억2100만원으로 요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용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 3억원이 새



여아, 현병철 청문회서 의혹 집중 포화

논문표절 · 아들 병역비리...장애인권 침해도 제기



국회운영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현병철 후보자 모습. ©에이블뉴스

여아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연임이 내정된 현병철 후보자에 대해 논문표절, 아들 병역비리, 장애인권 침해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국회운영위원회는 7월 16일 오후 2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권위원회 후보자로 연임 내정된 현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심사하기 위한 자

리로 지난 2월 인사 청문대상에 인권위원장이 포함되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실시됐다.

이날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고 3이던 아들의 체중이 1년 새 13kg나 늘면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기준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의도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지금까지 쓴 논문 25개 중 7개 이상이 표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절의 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의 논문을 훔치고 자기논문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한양대 교수 퇴임 1년 전인 2008년 '법학논총'에 발표한 '건설공사도급계약당사자 보증제도' 논문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체중으로 건강관리를 해왔으나 고 3과 재수 시절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로 한 달 사이 체중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병역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견해가 다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 윤리강령에는 1시간에 4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현 후보자는 이보다 과한 강의를 받아 챙겼다”며 “분명 윤리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외 서 의원은 “3년 동안 비행기는 1등석을 타면서 1억2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술과 밥을 먹으며 1억7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현 후보자가 위원장 시절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2010년 12월 장애인들이 인권 위 점거 당시 현 위원장이 엘리베이터와 난방공급을 중단하고 장애인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며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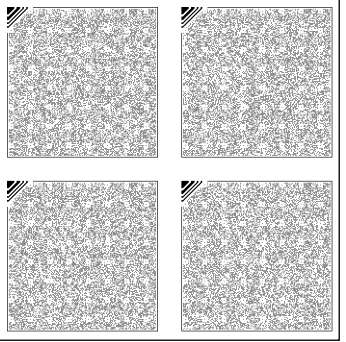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현 후보자는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하는 일은 없었으며 인권위는 빌딩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을 총별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농성점거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장 의원은 “인권위의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농성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식수는 최소화, 식사는 반입금지, 편의제공 제한 컴퓨터 사용금지 등이 담겨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빌딩 관리 책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별로 냉난방 및 전기 공급의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 후보자의 해명에 이날 인사청문회를 참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와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 활동가는 “그날 당했던 장애인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현 후보자를 질타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장항숙 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신이 인권위에 몸담았던 시절 인권위에 인권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 전 상임위원은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난 2010년도 인권위를 장애인들이 점거하고 있었다”며 “늦은 저녁 점거하고 있던 장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둠과 추위에 떨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현 후보자의 위장전입, 내부 직원 과도 징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요양병원 직원이 장애인 환자 폭행

얼굴 마구 때려...전치3주 중상 입어

한 요양병원의 직원이 장애인 환자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3년 전 일어난 교통사고로 장애를 앓는 임모(51·지체장애 5급)씨는 지난 달 29일 입원 중인 요양병원(전북 전주시)에서 퇴원에 관해 병원 이사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들어온 병원 홍보실 직원 윤모(45)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임씨는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병원에서 그것도 직원이 환자를 때릴 수 있는 것이냐? 심지어 내가 병원에서 환자를 빼가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억지 주장까지 나돌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임씨는 이 모든 일이 병원장에게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항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임씨가 항의를 한 뒤 병원 직원들은 “병원에 불만이 있으면 당장 나가라”며 임씨를 압박했고, 불편한 마음에 병원을 퇴원하려던 날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의 한 관계자는 “환자를 때린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직원의 잘못을 사과하고 환자 분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피의자인 윤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현재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개발원, 구인·구직 홈페이지 ‘일터로’ 개설

장애인 구직·구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일터로(ilterro.koddi.or.kr)’가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6월 29일 개설한 ‘일터로(로)’는 장애인일자리사업(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과 견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일자리지원사업의 홈페이지로 장애인 구직, 구인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일터로에서는 계속일자리지원사업 소개와 일자리 전이 사례, 구직·구인 정보, 취업지원기관, 상담, 관련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이 구직등록을 하면 한국장애인개발원 담당자가 장애유형,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구인등록한 업체와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일터로(ilterro.koddi.or.kr)’ 홈페이지 캡처.©한국장애인개발원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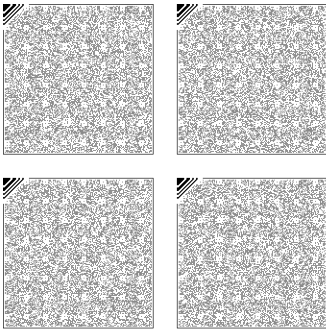
구직자는 홈페이지에 인적·이력사항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기술해야 하며, 구인자는 업체소개 및 채용직종 등의 정보를 입

력해야 한다.

또한 취업지원기관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정보 및 관련 정책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18대 국회 종료…의원들 평가는?”

박은수 의원, “장애인연금법제정 등 기본 틀 마련”
정하균 의원, “장애인 차량 면세혜택 불발 아쉬워”

제18대 국회가 지난 29일 종료됐다. 18대 국회에는 새누리당 정하균, 윤석용, 이정선, 심재철, 민주통합당 박은수, 이상민, 통합진보당 곽정숙 국회의원 등 총 7명의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활동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공동으로 18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29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18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박은수, 새누리당 정하균 의원과 19대 국회에 진출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등 20여명의 장애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장애인 단체장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18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다. 장애인당사자 의원들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못 내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장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보니 당론이나 당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공동으로 5월 29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18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에이블뉴스

명령에 따라야 했던 것들이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명의 활동보조인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장애후보를 많이 낸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다행히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19대 의원들과 장애계가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제3차 아·태 장애인10년을 한국이 이끌게 됐다”며 “인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하균 국회의원(구 친박연대)은 “입법 활동 동안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장애인 차량 면세혜택과 보조기기 지원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정 의원은 2008년 LPG를 비롯한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차량 연료에 면세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2010년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차량 면세는 장애인들이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인데 정계의 이해부족과 속한 당이 소수당이다 보니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회의원 1명의 힘은 크지 않다. 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의원이었다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장애계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과오 없이 국회 일정을 마무리 한 것 같다”며 “18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19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들이 잘해 낼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이정선, 윤석용, 심재철, 민주통합당 이상민,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복지부, 전동보장구 품목 · 가격 개정

전동휠체어 3개 추가…8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7월 10일 전동휠체어 3개 품목과 전동보장구 4개 품목을 급여품목에 추가하고 결정가격을 신설한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을 개정 · 고시했다.

추가된 전동휠체어는 (주)에스에스케어의 P12SXL(235만6,000원), (주)케어라인의 나래(206만원), 휠로피아(디에스이)의 KP-45.5(398만1,000원)이다.

전동스쿠터는 휠로피아(디에스이)의 SC3450(277만



9,000원), (주)대세엠케이의 HS-580 Delta(148만9,000원), (주)휠로피아의 K2

Marvelous(144만6,000원), (주)코니모빌리티의 Conee S101(169만7,000원)이다.

이외에도 (주)휠로피아의 전동휠체어 제품명이 WISKING 1023에서 K2 Power으로 변경됐다. 가격은 기존대로 172만2,000원.

이로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품목은 전동휠체어 29개, 전동스쿠터 21개로 기존 43개에서 50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전국 확대

국번 없이 117…24시간 연중 운영

정부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6월 18일부터 경기 2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117 학교폭력센터는 각 지방경찰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사가 합동으로 근무해 학교폭력 신고접수, 상담 및 수사·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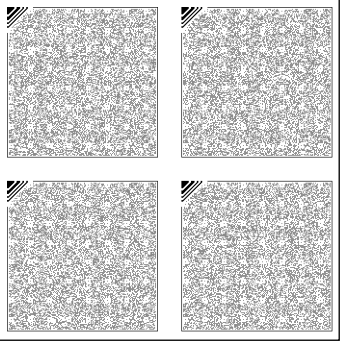
지방청별로 운영하는 17개소 117센터는 24시간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며, 경찰청 · 교육과학기술부 ·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팀을 편성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 수사 ·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생 · 학부모 그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7’을 누르면 바로 신고자가 거주하는 지역 ‘117’ 센터로 연결되며, 신고접수 ·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신고자가 원하는 지역을 직접 진출해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며, 기존 신고 전화와는 다른 현장감 있는 대처로 피해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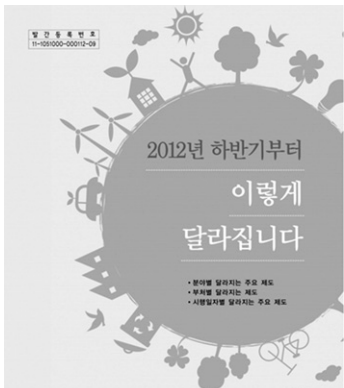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여성·아동 강간 ‘공소시효 폐지’

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21건 제도 담겨...전국 공공기관 등에 비치 예정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

내달부터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26개 부처 총 221건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정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2.3.6)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성을 폭행·

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여성으로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소시효와 ‘항거불능’ 용어가 삭제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도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되며, 업무상 위력(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협박)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종업원 외 사용자도 범인과 함께 처벌된다.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교육상담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과 가정 방문하는 학습지도사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오는 9월 16일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삭제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이 책자는 이달 초부터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기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장애+여성’ 이중적 차별 호소

여성장애인들, 참정권 보장 등 요구



여성장애인들이 3일 오전 여의도로 나와 여성장애인의 참정권 확보에 목소리를 높였다.

7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거리에는 여성장애인 300여 명이 운집해 있었다. 이유는 ‘제

1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거리 퍼레이드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거리를 돌며 ‘여성’과 ‘장애’의 이중적 차별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장애인 의견 반영 ▲여성장애인 정책 개발 및 예산 배정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여성장애인 장애특성과 몸의 조건

개리 카프시 성재활전문강연자의 ‘장애, 성 그리고 관계’, 한국의 이범석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의 ‘한국의 성 재활 현황과 의료적 접근’ 등이 발표됐다.



7월 4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척수손상 후의 성’ 행사 모습

‘척수손상 후의 성’ 국제세미나 열려

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김해섭)는 7월 4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척수손상 후의 성’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스웨덴, 미국, 한국 전문가의 강의를 통한 척수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성 재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해외 사례들을 통한 정보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스웨덴의 도로

에 맞는 참정권 보장 ▲투표소 접근권을 보장 및 성별·장애유형에 맞는 활동보조인 배치 ▲선거방송 수화통역 의무화 및 선거용 자료 점자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권순기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은 교육과 노동, 성적자기결정권 등 삶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집안, 시설, 지역사회, 법과 사회

제도 등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성별통계와 성별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정책의 수혜범위에서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면서 “200만 여성장애인 유권자를 대표해 7가지 요구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세계장애대회 자원봉사 모집

만 65세미만...9월 7일까지 모집

인천세계장애대회 사무국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오는 10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인천세계장애대회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영어능력, 국제회의 각 분과업무 수행능력, 성실함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만 65세 미만인 자에 한한다. 모집분야는 행사 참여자의 숙박·영접·수송·안내·회의·공식행사·등록·사무국 지원 등이며 활동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unesapvolun@hanmail.net) 또는 팩스(032-446-4104)로 오는 9월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vt.incheon.go.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실비(2만원)와 유니폼,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서가 발급된다. 참여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정되며, 서류합격자 통보 및 면접일시 발표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032-435-4104)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예술인의 登龍門 ‘제2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6월 8일(금)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제2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가 끝난 후 수상자와 내빈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음악 등 총 4개부문 경연...여명호 군 대상 수상 김정록 회장, “예술제, 장애예술인의 요람으로 만들 것”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난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제2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이하 예술제)』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가 후원하는 본 예술제는 장애인들의 예술적 소질

과 재능을 개발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개최돼왔다. 국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작년까지 치러진 24회의 대회동안 총 30만여명이 참가해 국내 최대의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씨 등을 발굴하며 수많은 장애인 예술인의 등용문(登龍門)의 역할을 해 왔다.

예술제 당일에는 음악부문의 경연대회가 열렸다. 또한 사전 접수해 전문가와 교수 등이 심사한 미술, 글짓기, 사진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됐다.

대회 결과 음악경연에 참가

한 여명호(15세, 자폐1급, 의왕 백운중학교) 군이 이번 예술제의 ‘전체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예술제에서 치러진 음악경연에서 하이든의 ‘첼로협주곡 1번 1악장’을 연주한 여명호 군은 “풍부한 감수성을 담은 훌륭한 연주”라는 정태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의 평가를 받으며

영예의 전체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여명호 군의 이번 수상은 세 번째 도전 끝에 거둔 성과로, 참가자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글짓기 부문에서 권조(남, 지체장애1급, 46세)씨, 미술은 양유진(여, 지적장애2급, 14세)양, 사진 김광주(남, 뇌병변장애2급, 40세)씨, 음악에서 우재승(남, 발달장애3급, 14세) 군이 부문별 대상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를 개최한 지장협 김정록 중앙회장은 “예술 작품에는 장애가 없다. 장애예술인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세계적인 명성과 존



「제2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의 음악경연에 참가해 전체대상을 차지한 여명호 군의 연주 모습.



이날 예술제가 열린 행사장(이룸센터 이룸홀) 밖 로비에서는 미술, 사진 등의 수상작들에 대한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미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



김정록 중앙회장이 「제2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의 전체대상자인 여명호 군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의 심사위원 민병곤 경인교육대 교수가 심사평을 전하고 있다.



류중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이 각 부문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창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이 미술·음악부문의 최우수상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을 받을 수 있다”며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를 장애인예술인의 요람으로 만들어, 한국이 장애인 문화·예술의 선진국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수상자 및 참가자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4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접수한 1,262명의 참가자 중 예선을 통해 선발된 총 201명(글짓기 85명, 미술 58명, 사진 24명, 음악 34명)의 장애인예술인들이 참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음악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울대학

교 정태봉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참가자들의 수준과 연주곡의 난이도가 지난 해 대회보다 높아져 심사를 하기가 어려웠지만 날로 발전하는 장애인예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심사평을 전했다.

이어 “오늘의 대회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즐겨워하는 음악을 맘껏 즐기는 시간이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는 장애인예술가들. 다음 대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벌써 내년 대회가 기다려진다.

제 25 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수상자 명단

▲전체대상

부 문	성 명	소 속	비고
음악	여명호	의왕백운중학교	보건복지부

▲각 부문 대상

부 문	성 명	소 속	비고
글짓기	권조	민들레공동체	법 무 부
미 술	양유진	서귀포온성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사 진	김광주	충북장애인사진연구회	보건복지부
음 악	우재승	부림중학교	고용노동부

▲각 부문 최우수상

부 문	성 명	소 속	비고
글짓기	김광현	이레장애인선교회	보건복지부
	문영열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복지부
	유영희	전북장애인여성연대	고용노동부
미 술	성정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문성용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	보건복지부
	이재석	포항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고용노동부
음 악	박가은	경인고등학교	보건복지부
	고민성	조원고등학교	보건복지부
사 진	김현용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지회	보건복지부
	이중화	충북장애인사진연구회	고용노동부

▲각 부문 우수상

부 문	성 명	소 속	비고
글짓기	한복섭	제주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대회장상
미 술	김용삼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	대회장상
음 악	박혜수	강원명진학교	대회장상
사 진	성기용	충북장애인사진연구회	대회장상



사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중화(충북, 신장 2급) 씨와, 우수상을 수상한 성기용(충북, 지체 2급)씨의 작품.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의견 수렴의 장

발달장애인법 내용 중 ‘일부분 보완’ 필요 목소리 자기결정권 인정범위 판단 어려워...특별기금 부적절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이 지난 7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영국 사무처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이 발달장애인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와 한국장애인사랑협회 이경아 교육자문위원, 한국장애인부모회 유향금 용인시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이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조용선 부산사상구지부장이 나섰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발달장애인지기결정권’, ‘특별기금 조성’,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서비스 연령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근거를 망라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록 의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가 지난 18일 마련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법의 필요성을 전제로 ‘발달장애인지기결정권’, ‘소득보장 현금급여 지급’ 등의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 발달장애인지기결정권

“발달장애인지기결정권 인정 범위 판단 어려워”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의 자기 결정권 인정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발달장애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법적 간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결정권의 가부장적 제한은 자칫 본인보호라는 미명 아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염 변호사는 또한 “장애인 본인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서라도 보호해야 하는 법익이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떠한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아동의 지위 자체로 부양과 후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교육·복리를 위해 자기결정권이 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특별기금 조성

“재원조달 위한 특별기금 조성 부적절”

발달장애인법에는 법률 재원조달 방안으로 발달장애인지기결정권 특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지정했다. 정부출연금이나 정부외 출연 또는 기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복권기금, 발달장애인지별과태료 등의 재원으로 발달

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염 변호사는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주된 역할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관리 및 배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실질적으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기금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소득보장 위한 현금지급 피해 발생 우려”

한국장애인사랑협회 이경아 교육자문위원은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개인별 소득보장 금액을 최저 임금액 이상(95만 4000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소득이 없는 발달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50%를 뺀 나머

지 금액이 지급되는 데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 것.

이 위원은 “현금지급으로 인해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돈’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지급된 돈은 과연 그들을 위해서 쓰일지, 많은 돈을 당사자가 직접 관리하는 할 수는 있을까 등의 상황들이 우려된다”면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발달장애 성인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전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간접 바우처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되거나 연금형태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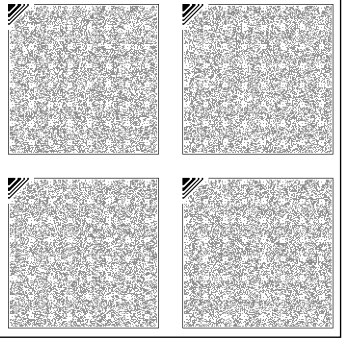
이어 “간접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성인기 프로그램과 활동보조 지원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서비스 연령 제한

“서비스 연령 제한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국장애인부모회 유향금 용인시지부장은 발달장애인지기결정권 서비스와

소리로 읽는 새보람



실종 발달장애인지원 대상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발달장애인법에는 건강관리, 소득보장, 돌봄 등의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종 발달장애인지원 대상은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유 지부장은 “실제 14세 이상의 발달장애자녀를 잃어버려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된다”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굳이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건강과 발달 관련 규정이나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도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상을 규정해놓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원무(자폐성장애3급) 씨는 직장 내 적응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직장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마련을 요구했다.

이 씨는 “(장애로) 사회성이 약간 결여된 상태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장 내 발달장애인의 문화를 알고 지원할 수 있는 고용환경이 마련되고, 발달장애인지기개선행동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왼쪽), 한국장애인사랑협회 이경아 교육자문위원(가운데), 장애 당사자로 참석한 이원무씨(오른쪽).



새보람 독자기고 및 메일링 확대 추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장애인신문 '월간 새보람'의 편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1년 새보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보람의 지난날을 평가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신문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새보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국의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새보람이 진정한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기고)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고 주 제 : 자유주제
- 기 고 마 감 : 매달 8일까지 이메일(kappd@kappd.or.kr)
- 경 품 : 천연비누세트
- 당 첨 발 표 : 새보람 23면 게재

※ 새보람 메일링 서비스를 확대해 추진 중이니, 컴퓨터를 통해 좀 더 빨리 새보람을 접하실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02-2289-438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02)2289-4381, kappd@kappd.or.kr

서울시, 집주인과 세입자 다툼 중재 나선다

이달 16일부터 ‘간이분쟁조정제도’ 도입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월세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상당실’을 이용하면 법원의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시)는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당실’에 ‘간

이분쟁조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7월 16일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상당실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 차임증감 청구 등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단, 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 당사자 모두 참여 의

사를 밝힌 경우만 가능하고, 경매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 및 최우선변제금과 같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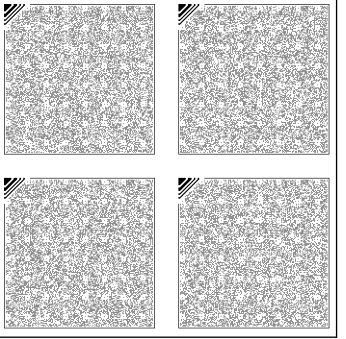
분쟁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1명 등 총 4명이 진행한다.

절차는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

신청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한다.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서울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당실로 전화(02-731-6720~2, 6240) 또는

소리로 읽는 새보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재방안은 비록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임의적·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시, 장애학생 위한 학교기업 ‘원스텝’ 설립

1천700여㎡ 규모…직업교육 메카 기대

인천지역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할 ‘학교기업’이 특수학교인 미추홀학교에 처음으로 설립돼 운영된다.

인천시교육청일 7월 5일 발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수학교인 미추홀학교를 학교기업 운영 학교로 지정받아 22억원을 들여 이 학교 건물 4층에 1천700여㎡규모의 학교기업 ‘원스텝’을 세웠다.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 진출의 첫걸음을 준비하는 기업이란 뜻에서 원스텝으로 명명된 이 학교기업은 14개 교실에 다양한 직업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교 측은 본교 뿐 아니라 다른 특수학교의 고교 과정과 전공



인천 미추홀학교 장애학생들이 5일 오전 인천지역 최초로 설립된 학교기업 ‘원스텝’에서 직업실습을 하고 있다.

과(고교 졸업 뒤 2년 동안 직업교육을 하는 과정) 학생, 일반 고

교의 특수학급 소속 학생 등 150여명에게 3주씩 직업체험 교육을 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콘센트 조립, 천연 비누 생산, 제과 제빵 등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며 자활능력을 키우게 된다.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빵, 과자, 음료를 팔며 상점 운영 노하우도 쌓게 된다.

특히 이곳에는 쇼핑백 제작업체인 ‘빨간사과’, 현대공예인협회,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인 유일산업 등 3개 업체·단체가 입주, 장애학생들에게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직업 체험을 하며 얼마간의 임금을 받고 업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만드는 상생구조다.

광주시, 국가암관리사업 활발 전개

저소득층에게 무료 암검진·의료비 지원



광주시가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무료 암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암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이하 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무료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암관리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7월 11일 밝혔다.

국가암무료검진사업은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율을 높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무료검진 암종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국가 5대암이다.

무료검진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 하위 50%(지난해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 월 7만 8000원, 직장 가입자 월 7만 3000원)이하인 자로 △위암과 간암은 만 40세이상 남·여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은 만 50세이상 남·여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여성이 해당된다.

이들 대상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폐암 환자는 의료비 상관없이 정액 100만원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소아·아동암의 경우는(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선정) 검사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백혈병의 경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암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요시 소득 관계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는 동구 608-2734, 서구 350-4135, 남구 650-8417, 북구 410-8947, 광산구 960-8764번이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77명 사서보조원 채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이하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증장애인 77명을 도교육청 직속 기관과 각급 학교 도서관의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중 30명은 이날 각 기관에 배치됐으며, 나머지 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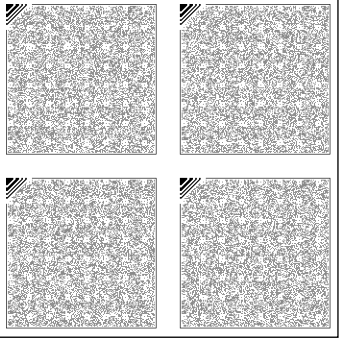
은 기본 교육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치된다.

이들은 사서교사 및 사서직 공무원들을 도와 대출도서 정리, 분류, 서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무는 주 5일, 하루 4시간이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그동안 장애학생의 직업평가, 연수 및 고용지원, 교육훈련 등을 진행해 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전북도, 2급 장애인에 ‘활동지원’ 추진

전주시 지적·자폐성 등...36시간 서비스 제공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 이하 도)가 이달부터 1급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던 활동지원서비스를 2급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

으로 사회참여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기존 활동지원서비스가 1급에 한정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2급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전주시를 시범지역으로 해 40명의 뇌병변·지적·자폐성 2급

중증장애인에게 36시간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2급 뇌병변·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으로 단독세대 장애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저소득장애인, 교육 중인 장애인, 사회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장애인, 만6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등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하는 장

해인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시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장애인 위한 ‘무장애도시’ 선언

이동제약 주는 건축물 장애요소 제거



건축물 앞에 휠체어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마련돼 있다.

진주시(시장 이창희, 이하 시)가 지난 7월 9일 무장애도시(Barrier Free City)를 선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주는 건축물의 장애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등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법률적으로 편

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대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단차이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이 용이토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혁신도시·선택지개발지역 내 건축되는 건축물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도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점자 주민등록증’ 1차 교체 완료

시각장애인 위해 투명 점자스티커 부착

창원시가 시각장애인 불편해소와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점자 주민등록증’을 제작한 후 교부를 완료했다.

시는 4월 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47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로 5월15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읍면동별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은 결과, 388명이 신청해

27일까지 제작한 뒤 28일 등기우송 및 방문을 통해 교부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점자 주민등록증은 얇은 투명 점자스티커를 주민등록증에 부착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돌입

교육청에 커피숍 ‘카페위’ 개점



특수학교기업 성산이 대구시교육청 안에 개설한 카페위(cafe we) 분점에서 장애우 학생들이 매니저 등과 함께 여러 가지 음료를 제조해 선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한 특수학교가 학교기업 중 하나로 운영하는 커피숍을 대구시교육청 안에 개점했다. 학교기업 성산(대표 박종화 보명학교장)은 7월 2일 대구시교육청 동관 1층에 장애학생 직업직무 기능 실습장을 겸한 ‘카페위(cafe we)’ 시교육청점을 열었다.

카페위 시교육청점은 특수학

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2명과 바리스타 자격이 있는 학부모 도우미 2명이 조를 이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운영한다. 장애인들은 학부모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를 내리거나 주문 접수, 배달 등 직업훈련을 하면서 급여도 받게 된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메뉴는 에스프레소 1천300원, 아메리카노 1천500원, 생과일주스 2천200원 등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또한 카페위 시교육청점은 추후 장애인들의 실습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박종화 보명학교장은 “카페위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된다”고 말했다.

충남도, 장애인 위해 횡단보도 신호연장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웅선)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를 위해 충남도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연장해 실시한다.

기존 보행속도(1.0m/sec)였던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속도

(0.8m/sec)로 변경됐고, 편도 2차로 횡단보도도 기존 횡단보도의 신호시간 보다 약 4초 가량 보행신호 시간도 연장됐다.

또한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48개소 중 도로에 인접한 장애인 생활시설 10개소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

해 장애인 시설 및 자치단체와 협의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통행이 예상되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이용 음향신호기를 94개소 188개를 추가 설치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주시, 도내 첫 ‘장애인 전용 목욕탕’ 개장

강원 원주에 도내 첫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개장, 운영된다.

원주시는 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하에 3억5천만원을 들여 252㎡ 규모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만들었다고 6월 26일 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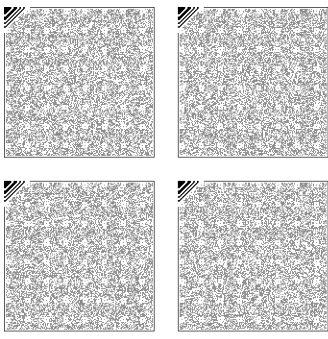
혔다.

이곳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을 비롯해 미끄럼 방지 시설과 특수 옷장, 특수 욕조, 건식샤우나 등이 설치됐다. 사용료는 일반 장애인은 2천원, 중

증 장애인 1천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태장동 6천36㎡의 터에 12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전용 체육관건립을 2014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02-3488-2321~6)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에이블뉴스〉

서울시, 사회복지 9급 장애인 8명 채용

학력제한 없어...8월 10일까지 원서 접수



서울시는 사회복지 9급 공무원 164명 중 장애인 8명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원 자치구에 배정돼 사

회복지 현장에 투입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법정 의무채용비율(장애인 3%, 저소득층 1%)보다 높은 수치로 전체 채용인원의 5%인 장애인 8명, 10%인 저소득층 16명을 각각 구분 모집하게 된다.

사회복지 9급 장애인 공무원에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으로

거주지 및 학력은 제한 없으며 사회복지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다.

필기 시험과목은 오는 9월 22일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등 총 5과목으로 치러지며, 면접시험은 11월 22일이다.

특히 장애인 응시자 편의를 위

해 응시원서 제출 시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점자문제지·확대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수화통역사 등의 시험편의가 제공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8월 6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로 접



우리은행이 지난 6월 26일 16명의 장애인을 특별 채용한데 이어, 7월 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들 최종합격자들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본격적인 연수를 시작했다.

이번 장애인 특별채용에 최종 합격한 16명은 9일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은행에 업무 전반에 대

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12일부터는 향후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될 부서에서 OJT(기업교육에서 직무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형식으로 약 3주간 연수를 받게 된다.

연수를 마친 뒤에는 우리은행 여신서비스센터, 수신서비스센터, 콜센터 등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들 장애인 최종합격자들이 향후 근무하게 될 부서의

직원들에게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연수를 실시해 향후 장애인들이 근무 시 어려움이 없도록 쌍방향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이순우 은행장은

“우리은행 신입행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저를 비롯한 우리은행 1만5000여 임직원들은 여러분들이 은행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고객이 편리한 은행’으로 승화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에이블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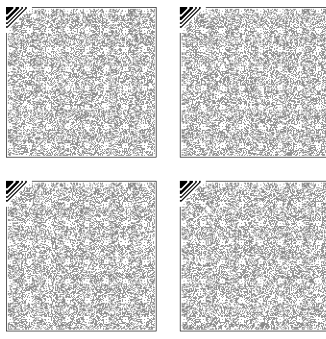
우리은행, 장애인 16명 채용

이달 9일부터 3주간 연수 돌입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생산직	(주)삼화유비텍	경기도 화성시	40세 이하	남	불량품 유무 선별작업	월 105만원/상여금	4대보험	02-2289-4321
2	생산직	모던조이	서울시 중랑구	40세 이하	무관	미싱보조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생산직	유니프라임	경기도 부천시	45세이하	여	조립업무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4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 이하	남	SMT업무/2교대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생산직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정보화인쇄사업단	서울시 영등포구	45세 이하	남	인쇄관련 단순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생산직	(주)성원공조	서울시 성동구	40세 이하	남	닥트제작 및 조립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7	생산직	미주산업	서울시 송파구	45세 이하	무관	액세서리 조립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8	서비스직	(주)선정인터내셔널	서울시 종로구	40세 이하	여	아웃바운드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9	서비스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5세 이하	남	소독원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0	서비스직	(주)코스트코	경기도 고양시	-	무관	대형마트(진열, 캐시, 안내 등)	시급 8,200원	4대보험	02-2289-4322
11	서비스직	(주)신앙이엔지	서울시 노원구	50세 이하	남	건물 주차경비원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2	전문직	한솔기획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무관	편집디자이너	면접 후 결정	4대보험	02-2289-4321
13	전문직	디자인여백	서울시 영등포구	35세 이하	무관	편집디자이너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4	사무직	(주)TLS정고려인삼	서울시 서대문구	50세 이하	무관	자료 엑셀입력작업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5	운전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0세 이하	남	아파트 수목 소독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6	운전직	(주)지피솔루션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남	거래처납품 및 배송	월 16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7	경비직	(주)인덕종합관리	서울 전역	60세 이하	남	건물 경비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8	경비직	(주)티지엠	서울 전역	65세 이하	남	아파트 경비직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9	미화직	(주)유전실업	서울 전역	68세 이하	여	건물 및 은행 미화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소리로 읽는 새보람



(www.cvouche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나들이’ 외에도 희망멘토의 강연과 문화예술콘서트를 통합한 ‘희망강연 문화콘서트’,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연극으로 재연하고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연극과 함께하는 역사탐방’을 추진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바우처 관련된 정보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와 (www.cvoucher.kr)와 서울 문화바우처 커뮤니티(http://cafe.naver.com/shareculture)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의-서울문화재단 문화나눔팀 02)3290-7149>

문화 사각지대, ‘문화바우처’와 함께해요

서울시, 5만원 문화혜택 · 문화예술나들이 등 진행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경제 및 환경적 여건 등으로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의 문화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12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음반, 서적 등의 구입이 가능한 5만원 한도의 카드를 직접 지급하는 문화바우처 카드사업과 문화카드 사용이 힘든 고령층 ·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연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된다.

■ 5만원으로 문화즐거요

지난 4월2일부터 사용이 시작된 문화바우처 카드는 1가구당 1매(연간 5만원)가 발급되며, 만 10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이 있는 가구는 최대 6매까지 청소년 개인카드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복지시설 거주자에게도 본인 동의 후 각 시설장을 통해 개인별 문화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신규발급은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하거나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카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자는 ARS나 홈페이지 등록,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5만원을 재충전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바우처 카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서 · 연극 · 뮤지컬 등 각종 관람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영화는 전국 CGV에서 상영되는 작

품을 3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나눔티켓 제도를 활용하면 1회 3매까지 공연과 전시 관람권을 50~8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거나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화카드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문화카드 소지자로 구성된 30명 이상의 단체는 차량 · 식사 또는 다과 · 수화통역 등의 편의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모셔오는 문화나들이

기획바우처 사업은 신체적 여건 등으로 문화바우처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셔오는 서비스로 진행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오는 26일 종로구 거주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획바우처 첫 프로그램인 ‘문화

예술 나들이’를 시행한다. 이날 참여할 어린이들은 삼성동 PMC 어린이홀에서 열리는 체험놀이 전시 ‘가루야가루야’ 관람 기회뿐만 아니라, 보조 인솔자와 간식, 이동차량 등을 제공받는다.

기획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 예술 나들이”는 연극 · 뮤지컬 · 콘서트 · 국악 · 무용 ·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수혜자들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1차 선정 작품으로는 어린이 국악뮤지컬 판타스틱, 어둠 속의 대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년센스2 등 34개 작품이 문화 예술 나들이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며, 두 달에 한 번 새로운 작품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문화예술나들이” 참가신청은 복지시설, 자치구, 각 주민센터에서 최소 20인 이상 신청가능하며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장애인인권영화제 출품작 선정 · 발표

‘별볼일 없는 놈’ 등 8개 작품

제주DPI 부설 장애인영상미디어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5일 ‘제13회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출품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작품은 ‘별볼일 없는 놈’, ‘왓빠이야기’, ‘늘 꿈을 꾸는 무용수’, ‘피아니스트’, ‘해

질 녘의 아이들’, ‘둥근장막’, ‘페인트 통’, ‘가위에 눌린 이’ 등 8개다.

센터는 올해 열리는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를 위해 지난 3~4월 출품작을 공모했으며, 당시 21개 작품이 접수됐다.

센터는 일반대중과 장애인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매년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는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평창스페셜올림픽 대표선수 최종선발

위원회, 193명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에 출전할 한국대표 선수 193명을 최종 선발하고,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7개 정식종목(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스노슈잉,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플로어하키)과 1개 시범종목(플로어

볼)에 모두 출전한다.

우리나라 선수가 가장 많이 출전하는 종목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으로 예비선수 13명을 포함해 총 47명이 참가하게 됐다.

이어 알파인스키 28명(예비 10명), 크로스컨트리스키 30명, 스노우슈잉 24명(예비 6명), 피겨스케이팅 11명(예비 2명), 스노보드 17명, 플로어하키 32명(2

개 팀)이 시범종목인 플로어볼에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 팀이 선발됐다.

한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로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개최된다.

의족 스프린터, 런던올림픽 출전 확정

피스토리우스 400m, 1600m 계주 참가



절단장애육상 선수 중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6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사진)가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절단 장애 육상 선수가 비장애 선수들과 함께 올림픽 육상 종목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아공육상연맹(ASA)은 4일(한국시간) 피스토리우스를 육상 남자 400m와 남자 1600m 계주에 출전할 대표 선수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남자 400m 출전권은

남아공육상연맹의 규정 완료로 극적인 결과다. 피스토리우스는 지난 6월 29일 아프리카 육상선수권대회 400m 결선에서 2위에 올랐으나, 올림픽 출전 가능 기록(45초30)에 0.22초 뒤져 올림픽 출전 좌절의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남아공육상연맹은 피스토리우스를 선발한 배경에 대해 “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애인 선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뤄낸 육상 성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그는 두 번째 도전 만에 장애의 벽을 넘으며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인간 승리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피스토리우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런던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에 모두 출전하게 됐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칼럼

한경아 (에이블뉴스 칼럼리스트)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나는 경계인이다. 28년의 생을 나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다. 이곳도 저곳도 아닌 세상에서 나는 아슬아슬하게 버텨왔음을 고백한다. 그 경계인의 삶에 대해 2회 분량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처음으로 내가 선 경계, ‘장애’와 ‘비장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장애인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애인들을 본 적이 있다. 장애인의 몸으로 비장애의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고백이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장애인인가?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나는 장애인임이 틀림없다. 일단 나는 휠체어를 타고, 동사무소에 가면 장

애인등록증을 발급해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서류더미 어딘가에 내 이름 석 자가 적힌 서류뭉치가 처박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

장애라는 낙인이 찍히던 백일 무렵부터 지금까지 내 주위에 나를 제외한 장애인은 거의 없었다. 비장애인들의 세상에서 나는 나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다.

비장애의 세상에서 나는 내 장애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숨겨왔는지도 모르겠다. 계단으로 대표되는 장벽 앞에서 나는 그냥 순응했다. 주위의 도움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비장애의 세상에 나를 맞춰왔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

나는 내 장애가 사회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장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과연 내 장애가 다른 장애인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모르겠다.

실습과정 중 제출한 한 과제의 내용이 비장애인인 동료 실습생들의 내용과 내 것이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고, 나도 모르게 놀라고 말았다.

중증장애인 나들에게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는데 중증장애인인 나조차 중증장애인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 고려를 못한 것이다.

최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등장한 한 후보자는 소아마비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수자몹’이라는 명목으로 대법관

후보자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한다. 어쩌면 그는 단지 신체에 장애만 있을 뿐 그 장애로 인한 차별이나 억압을 당해본 기억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 장애를 가진 ‘비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왔으리라 추측해본다.

나? 중증장애로 인해 나는 나만의 차별과 억압을 당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분노할 뿐 나는 다시 ‘비장애’의 세계에 몸을 구겨 넣는다.

비장애의 세계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나의 뇌는 비장애에 최적화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와 같은 장애인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움찔거리고 TV에 비친 장애인들을 보며 비장애인과 같은 반응을 보이

곤 했다.

이제야 조금씩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비장애’의 뇌와 ‘장애’의 몸은 여전히 충돌을 일으킨다.

이 부조리한 상황에 나는 비열하게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를 무기로 살아남으려 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비장애’의 뇌로 이해하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애인’으로서 자각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장애인을 둘러싼 성장배경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까.

〈출처-에이블뉴스〉

성명서

“정부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이 땅의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정부의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이 드디어 공개되었다. 이 지원계획에서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권리보호와 진단·치료, 복지서비스, 교육·훈련, 그리고 자립지원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13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본 우리 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정부가 40여명의 발달장애인 전문가와 부모들로 ‘발달장애인정책기획단’을 꾸려서 장장 10여개월 동안 발달장애인 정책안을 고민하고, 역대 돈을 들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물이란 말인가?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 도입이나 작년에 제정된 ‘장애

아동복지지원법’의 하위법령으로 입법예고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 확대와 자격기준 강화 등 이미 도입이 예정된 제도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권리옹호 시스템과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기초인 사례관리제도의 구축 없이 성년후견제를 그 본 취지와 동떨어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서비스로 둔갑시킨 다거나,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시범운영하려는 계획을 보면 우리는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오히려 왜곡시키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

근본적으로 이번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정부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

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장애등급과 가족의 부양의무에 기초한 기존의 장애인 복지체계를 정부가 여전히 개선했을 의지도 전망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정부는 단지 지능검사점수에서 몇 점이 차이난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을 1, 2, 3급의 세 무리로 구분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지원계획에서 강조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마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또한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여전히 부모와 가족에게 돌리면서, 부모가 강요받는 부양의무의 제도적 율가미를 벗겨주기보다는 그 율가미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을 전문

심리상담으로 치료해주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야 말로 핵심을 빗나가는 변죽 때리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연스러운 통합을 실현해내고자 한다면 이번에 발표한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원계획에는 백인백색의 개성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복지욕구 사정체계를 비롯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서비스 결정 및 연계체계, 기본소득과 고용, 주거, 돌봄, 여가 등 종합적인 생활설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한 별도의 체계구축, 발달장애인 자조그룹에 대한 지원,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

기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과 사례관리제도 등이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제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법안에 담겨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애틋한 호소에 지금이라도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발달장애인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보장과 고용, 주거, 사회서비스, 인권옹호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핵심내용들이 최대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입법대체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이번의 지원계획처럼 또다시 알맹이 없는 발달장애인법안을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이 땅의 모든 발달장애인과 부모는 결단코 막아낼 것이다.

정부는 알맹이 없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에 머무르지 말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권리에 기초한 종합지원계획을 재수립하라!

2012년 7월 13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새보람 요양 병원

SAEBORAM HOSPITAL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새보람요양병원은 도심속에서도 자연친화적인
병실환경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안겨주는 재활요양치료
전문병원입니다.

대표전화

02.3492.7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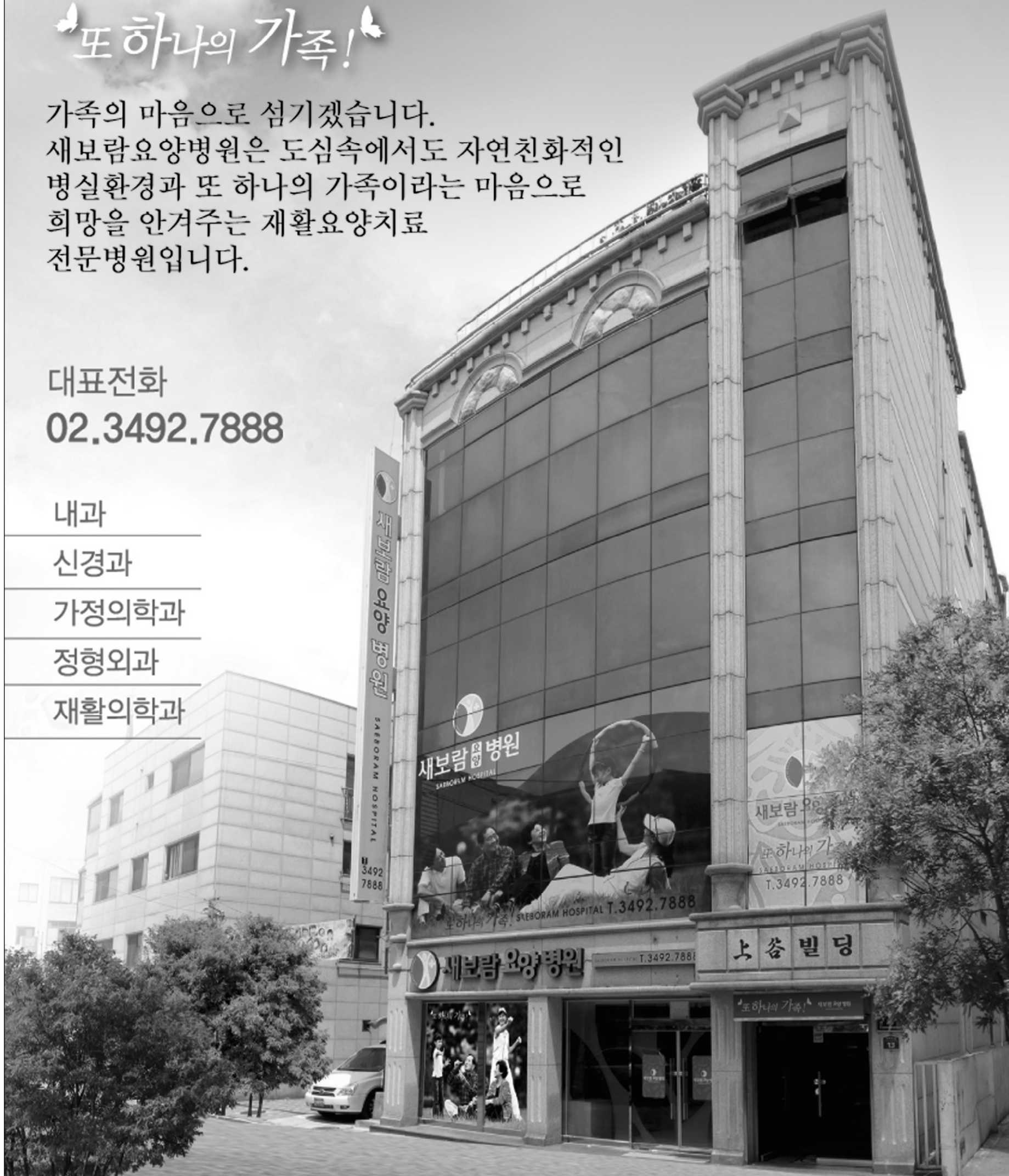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배우 김정훈, 장애아동시설에 쌀 기부 팬들이 보낸 쌀 1톤, 5개 장애시설에 전달



김정훈 씨와 팬들이 기부한 쌀 1톤 모습. ©하트하트재단

하트하트재단은 배우 김정훈 씨가 출연한 뮤지컬 ‘캐치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을 응원하기 위해 중국, 일본, 대만 등 4개 나라의 팬들이 보낸 쌀드림미 화환 1톤을 서울에 위치한 장

애아동 보호시설 5곳에 전달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쌀을 후원받은 가브리엘의 집 김정희 원장은 “다가오는 여름을 나기 위해 아이들이 먹을 쌀을 구입해야했던 시기에 이렇게 많은 양의 쌀을 지원받아 마음까지 든든해진 느낌이다”라며 감사의 표현을 전했다.

하트하트재단 신인숙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일상 속의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 힘 쓰겠다”고 했다.



신한은행이 7월 7일 일산홀트복지타운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과 함께 한 ‘따뜻한 나눔 봉사활동’ 행사 모습.

학교폭력 없는 세상, 나눔으로 실현 신한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과 봉사활동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지난 7월 7일 경기도 일산 탄현동 소재 일산홀트복지타운에서 신한가족 만나기(만원나눔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과 ‘따뜻한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신한은행 임직원 15명은 이날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15명과 함께 중증장애인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대화하고, 휠체어에 태워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들이 몸을 유연하

게 움직이는데 필요한 근육이완주사 비용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나눔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노사합의를 통한 임직원 기부활동인 ‘신한가족 만나기’ 활동으로 올해 1월부터 매월 임직원 본인 급여에서 1만원씩을 기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6개 단체에 총 2억2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2년 6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병석, 강상훈, 고인철, 김구환, 김민금, 김영진, 김정태, 김진호,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김태우, 김현석, 김환경, 남용원, 노순화, 박소연, 박양일, 박정현, 박종형, 반형만, 서동녀, 서석범, 서재훈, 선병욱, 손영주, 송호율, 우상욱, 우지현, 유재복, 윤채환, 이상돈, 이은정, 이태훈, 임재중, 전남지장협, 정다운, 정선용, 정은연,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최영민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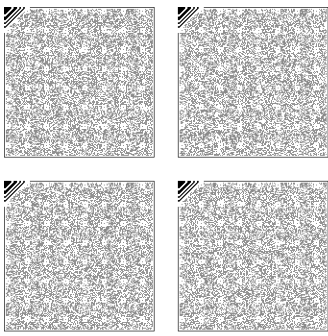
정답
힌트

지난 6월 8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제2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영예의 전체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참가자.

★1				★2		3
4	5					
	6		7			8
			9	★10		
				11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난호 정답

1★만				2★홍	길	3동
우		4외		삼		의
5절	6차	탁	마			보
	범				7영	감
	8근	9육			의	
		개			10정	11★석
	12병	장				양

| 가로열쇠 |

1. 효험을 나타내는 성능.
2. 자기 뜻대로 늘어나게도 오므라들게도 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몽둥이.
4. <지명> 우리나라 동쪽의 바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이른다. 대한 해협으로부터 난류가 올라오고 연해주로부터 한류가 내려와 만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산다.
6. <법률>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 상고 사건, 항고 법원이나 고등 법원 및 항소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따위를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9. <법률>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
11. <지명> 전라남도 서쪽에 있는 군. 농산물이 많이 나며 명승지로 용화사, 기산 영수, 약마 등 따위가 있다. 군청 소재지는 함평, 면적은 392.72㎢.

| 세로열쇠 |

1.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속한 동이다. 인왕산 기슭에 있으며 동쪽은 세종로(경복궁), 서쪽은 옥인동, 남쪽은 창성동, 북쪽은 궁정동과 접해 있다
3.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5. <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바닷가. 예로부터 수려한 경치와 온천,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7. <화학>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 원자핵 내의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가 같다. 현재까지는 112종이 알려져 있다.
8. <인명> 조선 제15대 왕(1575~1641). 이름은 훈(璘). 서적 편찬, 사고 정리 등 내치에 힘쓰고 명과 후금 두 나라에 대한 양단(兩端) 정책으로 난국에 대처하였다. 당쟁에 휩쓸려 임해군과 영창 대군을 죽이고 인목 대비를 유폐하였으며, 뒤에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다.
10. 성명, 주소, 직업, 신분 따위를 적은 네모난 종이쪽. 흔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을 알리기 위하여 건네준다.

6·7월호 정답

홍석만

당첨자

우창식

김유선

이승우

서울 종로구 송인동

대전 유성구 가정동

경기 광명시 광명동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지난 6월 8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 모습.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만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류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 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Sweet Meeting, fall in love~

소로 탈출 119

일 시 : 2012. 09. 22(토) 11:00~16:00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B1)

참가대상 : 미혼남녀(20세~45세)

신청기간 : 7월 16일(월)~9월 14일(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장애인맞선이벤트!!

